

2025-01-06 (2025-01호)

1월 6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원화 부정적 시각에도 1500원 직행 가능성은 줄어

서울, 1월6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본격적인 새해 첫 주가 시작되는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국내 탄핵 정국 전개 양상과 함께 달러와 위안 움직임에 흔들리는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455-1485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충돌이 격화되는 등 국내 정치 혼란이 지속되면서 원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주말 달러지수는 109선에서 소폭 밀렸지만 이번 주 후반에 나올 미국 고용지표 결과를 앞두고 달러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경계해야할 대목이다.

로이터 전망에서는 지난 12월 미국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15만개 증가해 11월 22만7천개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취업자수가 급감하든, 급증하든 시장 예상을 벗어날 경우엔 연초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시장 일각에서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매우 균형잡힌 결과만이 시장 변동성을 자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시사한 중국 당국 기조에 위안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 역내 달러/위안은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로 올라와있다.

이런 가운데 금주 중 발표되는 중국 물가지표 결과에 따른 위안 반응이 주목된다. 또한, 유로존 물가지표 결과에 따른 유로 반응 역시 일시적으로 달러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다.

글로벌 달러와 위안이 강제 시도에 나선다 하더라도 원화에 대한 이렇다할 조정이 기대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만약 달러와 위안이 원화 약세를 자극하는 쪽으로 흐름이 형성된다면 원화는 변동성을 확대하려 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의 환헤지 관련 매물과 외환당국의 개입 물량에 대한 경계감이 환율 상단을 막아설 가능성은 크다. 물론 이는 환율 상승 시도가 있을 경우 강한 오피 확인이 전제돼야한다.

이전보다 달러 매물에 대한 경계 인식이 커진 만큼 환율이 1500원을 향해 직행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졌다. 그렇다고 원화 약세에 대한 확고한 전망은 달라지진 않았다.

미국 금리경로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을 두고 시장 해석과 전망은 한창이다. 특히 금주 중에는 지난 12월 연준 정책회의록 결과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아슬아슬한 탄핵 정국 가운데 놓인 원화는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완화된 변동성에 안도해야하는 실정이다.

이번 주 역시 달러/원은 국내외 상황을 눈치보는 어려운 상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확인할 지표로는 11월 국제수지(잠정)가 예정돼있다.

(편집 문운아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세계 이슈

이번 주는 미국의 고용지표와 중국 및 유로존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된다.

미국 금리 전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서프라이즈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이러한 지표가 발표되는 가운데 유로와 중국 위안은 이미 약세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다.

⊙ 美 고용지표

시장은 관세, 세금, 이민에 대한 트럼프의 공약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을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다.

트레이더들은 2025년에 겨우 두 차례의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만, 여전히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올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이 견디기 힘든 것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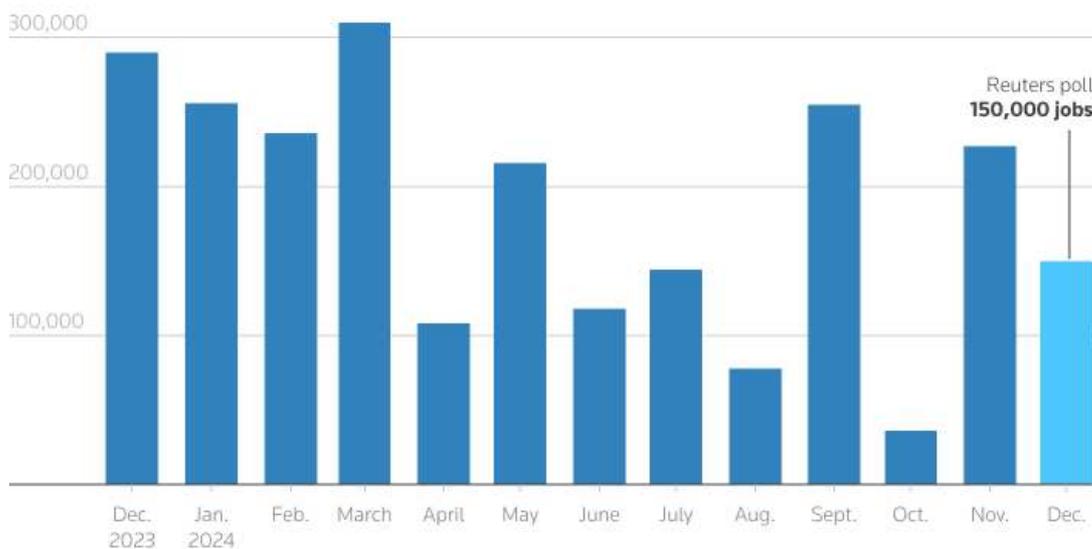
오는 10일 발표되는 지난 12월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1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에는 22만7,000명 증가한 바 있다.

이번에 15만명이 증가하면 2024년 고용 창출은 213만 4,000명이 될 것이다. 나쁘지 않은 수치이지만, 코로나로 인한 2020년 감소분을 제외하면 2019년의 198만 8,000명 이후 가장 낮게 된다. 지금 시장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경제의 회복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US nonfarm payrolls forecast to fall in December

The U.S. is estimated to have added 150,000 jobs in December 2024, according to Reuters poll.

The forecast is down from 227,000 job growth recorded in November.



Source: LSEG; Reuters polling | Reuters, Jan. 2, 2025

⊙ 더 우울한 중국

중국 당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중국은 불안한 2025년을 출발하고 있다. 중국 주식시장은 2016년 이후 가장 약한 새해 출발을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중국은 수출 가격을 낮추고 무역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자국 통화 약세를 허용했다. 위안화는 불과 2년여 만에 달러 대비 12% 이상 절하됐다.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가 이번에는 거의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성장률이 최대 1% 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다.

중국은 다시 위안화 약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세의 잠재적 규모를 감안하면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번 주 중국은 12월 인플레이션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 2024년을 어떻게 마감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유로존 인플레이션 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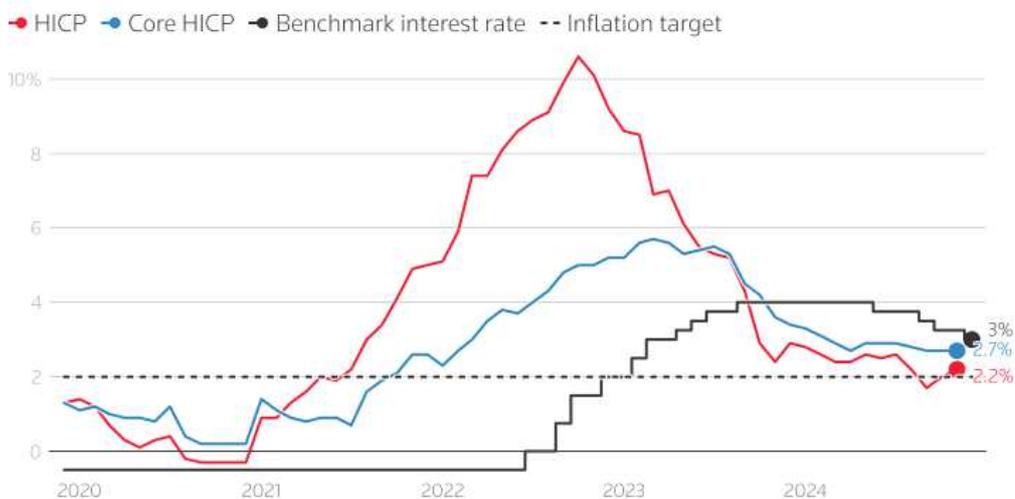
2025년 상반기 유럽중앙은행(ECB)의 100bp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자들의 베팅은 오는 화요일 12월 유로존 인플레이션 데이터에서 테스트를 받게 된다. 독일과 프랑스 인플레이션 지표는 월요일에 발표된다.

인플레이션이 더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면 ECB는 정책을 완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스페인의 기대 이상의 물가 상승이 다른 곳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천연가스 가격이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에너지가 ECB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2022년의 급등이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저장된 가스가 줄어들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기로 한 수십 년 간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Euro zone inflation and ECB interest rates

Benchmark interest rate and year-on-year change in consumer price inflation



HICP stands for the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 across members of the euro zone. Published December 19, 2024 at 12:09 PM GMT
By Reuters • Sources: Eurostat, LSEG

⊙ 저렴한 유럽 주식

유럽 주식은 2024년 또 글로벌 증시보다 뒤쳐진 한 해를 보냈지만, 일부에서는 곧 안도감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SX7P과 항공우주 및 방위주.SXPARG가 각각 26%와 33% 상승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던 가운데 투자자들은 올해 더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물론 리스크도 있다.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핵심이다.

하지만 스톡스600지수.STOXX는 미국 S&P500.SPX에 비해 41%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저렴하다. 영국의 FTSE 100.FTSE은 미국 벤치마크보다 더 가파른 50%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유럽 지역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서 기회가 생기는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은 경제 전망이나 지정학적 배경이 개선되면서 2025년이 유럽 주식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는 해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 美 주가, 다음 향방은?

S&P500지수.SPX는 2024년에 20% 이상 급등하고, 2년 연속 성장해 1998년 이후 최대인 약 53%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작년 말에는 경고 신호가 깜빡였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거나 트럼프 관세로 인해 상승할 경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가운데 지난 12월 18일까지 한 주 동안 투자자들은 15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글로벌 주식 펀드를 청산한 것으로 LSEG Lipper 데이터가 보여준다.

앞으로 며칠 동안 지난 12월의 리스크 오프 심리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더 심각한 상황의 시작인지가 드러날 것이다. 트럼프의 정책 시그널과 무역 파트너의 대응이 관건이 될 것이다.

지난 12월에 40bps 급등한 미국 국채 수익률도 주목된다. 추가 급등은 주식 매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美 고용보고서, 주식시장 올해 첫 큰 시험대

뉴욕, 1월6일 (로이터) - 투자자들은 2025년 주식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이지만 과열되지는 않은 경제를 보여줄 미국 고용 보고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증시는 12월 말과 1월 초에 흔들리며 그간의 격렬한 상승세가 진정됐다. 2024년 벤치마크 S&P500지수는 23% 상승했고 1997~1998년 이후 2년 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3년 연속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은 대체로 강한 경제에 달려 있으며, 노동 시장 데이터는 경제 건전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데이터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계획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지난달 연준은 2025년 예상 금리 인하 폭을 줄임으로써 시장을 뒤흔들었다.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앤서니 사글립벤은 "투자자들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확인하려 것이며, 이는 경제 전망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예상보다 조금 더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는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은 대체로 미국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작년 말 실시한 나틱시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저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의 73%는 미국이 2025년에 경기 침체를 피할 것이라고 답했다.

항공우주 산업 파업과 허리케인으로 인해 최근 몇 달 동안 노동 시장 데이터는 변동성이 컸다. 11월 데이터에서는 10월의 미미한 증가세에서 반등한 22만7,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

3개월 평균 13만8,000개의 일자리 증가는 "고용이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캐피털 이코노믹스 애널리스트들은 메모에서 말했다.

로이터 통신의 이코노미스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1월 10일에 발표될 12월 고용보고서에서는 실업률은 4.2%, 15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에드워드 존스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안젤로 쿠르카파스는 앞선 두 보고서에 이어 "이번 보고서가 노동 시장의 근본적인 추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첫 번째 명확한 판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또한 연초 시장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인플레이션의 부활과 함께 지나치게 강한 경제를 보여주는 일자리 보고서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연준은 지난 12월 회의에서 2025년 예상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연준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약 50bp 추가 인하를 단행하기 앞서 오는 1월 말 회의에서 완화 사이클을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쿠르카파스 투자전략가는 이번 일자리 보고서에 대해 시장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수치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 데이터가 가장 주목할 만한 발표이지만, 다음 주에는 시장에 민감한 다른 고용 수치와 공장 주문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한 보고서도 발표될 예정이다.

2024년 강세에도 불구하고 12월 증시는 S&P500지수가 2.5% 하락하는 등 약세였다.

비 라일리 웰스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아트 호건은 연말 연휴 기간 이후 "이번 주에는 거래량이 더 활발해질 것이며, 이는 확실히 시장의 방향성을 더 잘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조한 고용지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데 있어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이벤트

1월6일 (월)

⊙ 한국은행: 2024년 12월말 외환보유액 (06:00)

1월7일 (화)

⊙ 한국은행: 2024년 3/4분기 자금순환(잠정) (12:00)

1월8일 (수)

⊙ 한국은행: 2024년 11월 국제수지(잠정) (08:00)

⊙ KDI: KDI 경제동향(2025.1) (12:00)

1월9일 (목)

⊙ 기획재정부: 2025년 1월 재정동향(11월말 누계기준) (10:00)

⊙ 기획재정부: 2차관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16:00)

1월10일 (금)

⊙ 한국은행: 2024년 제25차(12.24일 개최, 비통방) 금통위 의사록 공개 (16:00)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1월06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치	이전 수치
1월6일	10:45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12월		51.5
1월6일	18:00	유로존	HCOB 서비스업 PMI 확정치	12월	51.4	51.4
1월6일	23: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확정치	12월		58.5
1월7일	00:00	미국	내구재주문 수정치 MM	11월		-1.1%
1월7일	19:00	유로존	조화소비자물가지수 잠정치 YY	12월	2.4%	2.2%
1월7일	19:00	유로존	CPI NSA	12월		126.62
1월7일	19:00	유로존	실업률	11월	6.3%	6.3%
1월7일		중국	외환보유고	12월		3.266T
1월8일	00:00	미국	ISM 서비스업 PMI	12월	53.0	52.1
1월8일	00:00	미국	구인이직보고서	11월	7.700M	7.744M

1월8일	19:00	유로존	생산자물가지수 MM	11월		0.4%
1월8일	19:00	유로존	기업환경지수	12월		-0.77
1월8일	19:00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12월	95.6	95.8
1월8일	19:00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 확정치	12월		-14.5
1월8일	21: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12월 30일 주간		174.9
1월8일	22:15	미국	ADP 전국고용	12월	139k	146k
1월9일	00:00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 잠정치	1월		
1월9일	05:00	미국	소비자신용	11월		19.24B
1월9일	10:30	중국	PPI YY	12월	-2.4%	-2.5%
1월9일	10:30	중국	CPI YY	12월	0.2%	0.2%
1월9일	19:00	유로존	소매판매 MM	11월	0.4%	-0.5%
1월9일	21:30	미국	챌린저 해고건수	12월		57.727k
1월9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2월 30일 주간	217k	211k
1월10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12월		1239.0B
1월 10-17일		중국	총통화(M2) 공급 증가율 YY	12월		7.1%
1월 10-17일		중국	신규 위안화 대출	12월		580.0B
1월 10-17일		중국	FDI (YTD)	12월		-27.90%
1월10일	08:30	일본	가계지출 MM	11월		2.9%
1월10일	22:30	미국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12월	160k	227k
1월10일	00: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1월	73.9	74.0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월6일 (월)

⊙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미시간대 로스쿨 컨퍼런스서 연설 (오후 11시15분)

1월7일 (화)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그레이터롤리 상공회의소 연설 (오후 10시)

1월8일 (수)

⊙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OECD 이벤트에서 연설 (오후 10시30분)

⊙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FOMC) 12월17~18일 회의 의사록 공개 (9일 오전 4시)

1월9일 (목)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NACD뉴저지챗터 연설 (오후 11시)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버지니아은행가협회 연설 (10일 오전 2시40분)

⊙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경제 및 통화 정책 전망 관련 연설 (10일 오전 3시30분)

⊙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 캘리포니아 은행인협회 세미나에서 연설 (10일 오전 3시35분)

⊙ 휴장국가: 미국

(김지연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2025 경제정책방향)-RFI 경상거래 환전 허용..국내기관 순위 공개 등 외환거래 활성화 촉진

서울, 1월2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정부가 외환시장 연장시간대 유동성 확보를 위한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야간 외환거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방안을 내놓았다.

▲ RFI 거래 활성화 방안

정부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그간 주식·채권 매매 관련 환전 업무에 한정된 RFI 영업 범위를 수출입 대금 환전 등 경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RFI는 비거주자 경상거래 관련 물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 다국적 기업 수출입 대금을 환전하거나 본·지점 근로자들의 월급 송금 등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다국적기업이 경상거래를 하려면 국내에 원화 계좌를 개설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RFI를 통해 환전한 원화를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상거래에 필요한 계좌 개설이 필수가 아니라는 의미다.

한 외환당국자는 "계좌 개설 없이 바로 RFI를 통해 지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수요가 들어오는 효과가 즉각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국은 1월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 중 선도 RFI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도 RFI로 선정된 곳에 대해선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참여, 당국과 정례적 소통 및 연 1회 제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기관별 연간 목표 거래량 등에 대한 RFI 서베이를 실시한 이후 이를 토대로 최소거래량 기준도 수립할 계획이다.

RFI의 보고의무 제재 유예기간은 2025년 상반기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한편, 그간 시장에서 애로사항으로 꼽힌 외환거래 컷오프 타임은 당일 오전 10시에서 11시로 늦추기로 하고, 원화 결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원화차입(오버드래프트) 대상 기관을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RFI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재 RFI와 대항기관만 가능한 직거래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 국내기관 거래 활성화 방안

당국은 외은지점을 포함한 국내 금융회사가 야간시간대에 딜러 없이도 자동 알고리즘을 통해 전자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안은 즉시 시행된다.

다만, 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시장 변동성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 아울러 국내 기관의 전자거래는 국내 장부로만 거래가 가능하다.

한편, 당국은 국내 외환시장에 참가자하는 금융회사들의 달러/원 거래량 순위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기관간 경쟁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공개 항목, 공개방식, 공개주기 등에 관해서는 서울 외시협을 통해 의견 수렴 후 1분기 중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편집 임승규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2025 경제정책방향)-韓국채 투자절차 전면 개편..온니버스 방식 전환·비과세 신청 대폭 간소화

서울, 1월2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정부는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한국 국채 투자 절차를 글로벌 기준에 맞추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그간 한국 국채 투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차이로 애로가 있었던 부분을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

▲ 국채 투자절차 통합매매 방식 전환

그동안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국채에 투자할 때는 하위펀드별 개별거래 방식이 필수였다. 다시 말해 외국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개별 하위펀드별로 국내 상임대리인 선임, 국내 금융기관과의 고객확인 및 계좌 개설이 필요했고, 국채 매매와 결제 및 당국 보고 역시도 하위펀드별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작년 6월 국제예탁결제기구 내 국채통합계좌가 개설됐음에도 관련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당국은 하위펀드별 거래절차를 전면 폐지하고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자산운용사 단위의 통합매매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원화채 투자 시 모든 거래절차는 글로벌 수탁은행 또는 자산운용사 명의로 이뤄지게 된다.

당국은 이러한 절차가 글로벌 기준과 부합하는 제도라면서 향후 국채통합계좌 활용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 글로벌 판매 모델 활성화

당국은 글로벌 은행과 국내은행이 연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채를 판매하는 글로벌 판매 모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투자매매업자인 국내은행이 보유 중이거나 유통시장에서 조달한 국채를 글로벌 은행에 매도하고 글로벌 은행은 이를 외국인투자자에게 매도하는 모델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하지만, 기재부와 금융위는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의 업역 구분을 준수하면서 국내은행이 투자매매업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판매 모델 기준을 마련해 원화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ی겠다고 밝혔다.

▲ 비과세 신청 절차 간소화

당국은 국채투자 비과세 신청절차 어려움도 대폭 해소하기로 했다.

기존에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경로에 있는 모든 수탁기관이 국세청에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등록하고, 하위펀드별로 거주자 증명서와 거래·보유 명세서를 제출해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제예탁결제기구를 제외한 모든 수탁기관의 QFI 등록 의무가 면제하는데, 국제예탁결제기구는 이미 QFI등록을 마쳤다.

한편, 향후 한국 국채 투자 시 통합매매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모든 거래절차에 있어 하위펀드별 정보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당국은 "외국인투자자들의 국채투자 비과세 신청 어려움이 대폭 해소되면서, 국채투자가 보다 용이해지고 투자자 저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2025 경제정책방향)-올해 국내경제, 잠재성장률 밑도는 1.8% 성장 전망..경기 하방위험 확대

서울, 1월2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정부는 올해 국내경제가 1%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제시한 2025년 성장률은 1.8%로 잠재성장률을 하회한다. 한국은행은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을 2% 수준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며 민생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확대된 대내외 불확실성이 성장경로, 금융·외환시장과 민생 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심화,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에 따른 수출 둔화를 올해 1%대 성장률 전망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올해 완만한 내수 회복을 예상하면서도 건설경기 회복 시점과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가계·심리 영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경제전망에서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한 바 있다.

반도체 업사이클 조정과 미국 정책전환 등을 감안해 정부는 2025년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8.1%)보다 축소된 +1.5%(통관기준) 수준으로 전망했다. 한편, 수입은 2024년 -1.6%에서 2025년 1.6%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

민간소비는 고물가, 고금리 완화에 완만한 회복을 예상하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높은 가계부채 수준 등으로 개선폭은 제약될 수 있다고 봤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 1.2%보다 확대된 1.8%다.

다만,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소비심리가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전망에 반영되지 않았다.

설비투자는 올해 2.9% 증가해 작년 1.3%보다 늘겠지만 수출 증가세 둔화,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경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증가세는 제한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건설투자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작년 1.5% 감소가 올해는 1.3% 감소로 소폭 개선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수출 증가세 둔화로 작년 900억달러에서 올해 800억달러로 흑자 규모가 줄겠지만 큰 폭의 흑자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5년 소비자물가는 1.8%로 2024년 2.3%에서 둔화돼 한국은행 물가목표치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작년 11월 제시한 2025년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1.9%였다.

경상GDP는 올해 3.8% 성장을 전망하면서 성장률 하락, 소비자물가·반도체가격 둔화로 인한 디플레이터 상승폭 축소로 작년 5.9%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 (달러/원 월간 전망 ①)-트럼프 · 정국 불안 등 굵직한 상승 재료 지속..1500원 돌파 가능성도

서울, 1월2일 (로이터) 박예나 · 문윤아 기자 - 달러/원 환율은 1월 국내외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재료가 지속되는 가운데 1500원 상단 테스트에 나설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438.8-1499.2원으로 제시됐다.

전망치 상단은 작년 마지막 거래일 런던 거래 종가(1472.3원)보다 27원 가량 높은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지난 달 70원 넘게 오른 달러/원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12월 정책회의 이후 불거진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우려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 작년 연말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이 새해에도 지속되며 달러/원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단기간 안에 이민 제한, 과세 부과 등 주요 행정명령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달러/원 상승 변동성을 키울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같은 굵직한 강달러 재료 속 일각에서는 달러/원 상단을 1520원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 달러/원 급상승에 따른 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물량과 연초 거래량 회복은 달러/원 상승 속도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 (달러/원 월간 전망 ②)-트럼프 · 정국 불안 등 굵직한 상승 재료 지속..1500원 돌파 가능성도

서울, 1월2일 (로이터) 박예나 · 문윤아 기자 - 달러/원 환율은 1월 국내외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재료가 지속되는 가운데 1500원 상단 테스트에 나설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438.8-1499.2원으로 제시됐다.

다음은 전문가별 코멘트

▲ 조가영 과장(신한은행)

"매파적이었던 12월 FOMC에서 촉발된 글로벌 달러 강세는 1월에도 유효할 전망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은 달러/원 하단 지지할 것으로 예상. 트럼프 취임 전후로 중국 위안화 및 엔화가 변동성 크게 보일 가능성 있어 원화도 이에 영향 받을 수 있음."

- 예상 거래범위 : 1450-1500원

▲ 이창섭 과장 (우리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 가결로 국내 정치 불안이 심화, 장기화되며 1월에도 원화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도 25년도 미국 기준금리 인하폭 전망 축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중국경제 회복 부진 및 BOJ 금리 인상론 후퇴 등 달러 약세 재료가 없어. 다만, 최근 환율 급상승의 경우 거래량 적은 연말에 밀려있던 결제수요 나오면서 가속화된 점도 있어 1월 급상승은 어느정도 제한될 전망이다."

- 예상 거래범위 : 1440-1510원

▲ 고규연 팀장(하나은행)

"연초에도 미국과 미국 이외의 금리정책 차별화로 인한 글로벌 달러 강세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취임에 따라 무역전쟁 및 미국 우선주의 대두로 원화 약세 지속될 전망. 정치 불안정이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 적고, 국내 경기 부진에 정치적 이슈 등의 악재가 겹치며 연초 1500원을 앞둔 공방 예상. 큰 네고 부재 속에 국민연금물량 출회 및 당국 경계감이 상단 제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500원 돌파시 금융위기급 레벨로 가는 점 감안하면 1400원 저항보다는 조금은 단단할 것으로 전망."

- 예상 거래범위 : 1455-1500원

▲ 이철우 과장(IBK기업은행)

"역대 최대로 역전된 한-미 국채 10년물 금리차 지속되며 달러/원 하단 지지할 것.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는 이탈된 외국인 투자자 유입 방해하고 더 나아가 일시적으로 달러/원 상방 변동성 가할 재료로 1월 내내 달러/원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레벨 이미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율 레벨로 추가 상승폭 제한되겠지만, 원화 강세 재료도 부재한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신고점 경신 시도하는 불안정한 모습 이어갈 전망."

- 예상 거래범위 : 1440-1490원

▲ 홍원재 팀장 (iM뱅크)

"미국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격차 더 심해지고, 금리 또한 격차 심해질 것으로 보여. 이러한 달러 강세 요인에 정국 불안이라는 원화 약세 요인까지 생겼는데, 단기간에 해결되진 않을 것 같지 않아. 연금 환헤지 물량 상단 막는 요인 될 수 있으나 추세 바꾸기 어려울 듯."

- 예상 거래범위 : 1440-1500원

▲ 김준연 대리 (KDB산업은행)

"트럼프 출범 이후 관세 정책 등이 환율 변동성 요소될 듯. 국내 정세 안정화될 경우 달러/원 급격한 상승분 중 일부는 되돌림 예상되나, 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한다면 하방 경직적 움직임 보일 것. 앞으로 나올 데이터 등에 따라 금리 인하 반영 정도가 결정되겠지만, 당분간은 강달러 기조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예상 거래범위 : 1440-1500원

▲ 이민혁 연구원(KB국민은행)

"국내 정치 불안 지속과 연초 수출 둔화 등 외화 수급 여건 악화,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등에 약세 지속. 원화 저평가 원인은 약화한 펀더멘털과 경상흑자 축소, 내국인 해외투자 증가 등 부정적인 외화 수급 여건으로, 2025년에도 원화 저평가 국면 이어질 가능성 높아."

- 예상 거래범위 : 1430-1490원

▲ 전병철 과장(NH농협은행)

"중국 위안화 약세 분위기 지속, 코스피 관련 외국인 순매도세 연장, 트럼프 행정부 출범 및 정책 리스크로 강달러 지지 전망."

- 예상 거래범위 : 1460-1520원

▲ 하건형 연구원(신한투자증권)

"달러/원은 1월 중순까지 1400원 중반에서 움직이다 하순으로 가면서 1400원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 예상. 선진국 간 통화정책 디커플링에 따른 강달러와 대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에 따른 원화 약세 압력이 주요 변수.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지난 하반기 비미국의 통화 완화, 확장 재정의 효과가 내수 경기에 반영되기 시작한 반면 미국은 더딘 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 추가 개선을 제한함에 따라 비미국의 상대 경기 부진 완화 기대. 달러/원 역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예고한 연준과 달리 한은의 신속한 금리 인하가 부담이나 펀더멘탈 충격 억제하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가 해석될 경우 원화의 추가 약세보다 점진적 강세로 작동 가능 판단."

- 예상 거래범위 : 1400-1480원

▲ 문홍철 파트장(DB금융투자)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 수출기업들의 어려움, 특히 1월부터 본격화될 아시아 국가에 대한 미국의 무역 압박 등 환율 불안요소가 산적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대응 주체 부재 및 수출 둔화 등으로 환율은 상방압력이 단기적으로 유효할 것으로 예상. 외환 당국의 개입이 간간히 있겠지만 글로벌 흐름 자체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전망. 연준의 통화정책도 트럼프에 대항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긴축적일 수 있는 점도 달러 강세 영향을 단기적으로 미칠 수 있음. 높은 변동성과 환율 상방 흐름에 주의할 필요."

- 예상 거래범위 : 1430-1500원

▲ 박수연 연구원(메리츠증권)

"각국 정책금리 전망 변화, 대내외 정치 불확실성, 얽혀진 연말 수급 환경이 겹친 결과로 현재 달러/원 단기 오버슈팅 구간으로 보여. 아직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고 미국 경기 우위도 여전하기에 환율 하단은 높을 것. 다만, 1500원을 상향돌파할만한 추가 재료가 보이지는 않아. 트럼프 취임식 이후 환율 하향안정화 시작 예상."

- 예상 거래범위 : 1460-1500원

▲ 권아민 연구원(NH투자증권)

"트럼프 취임과 맞물린 정책 불확실성, 연준 금리인하 기대 후퇴에 달러 강세가 이어질 전망. 12월 FOMC 이후 강달러 기조가 심화됐는데 해당 재료가 어느 정도 반영됐음에도 상대적으로 유로존, 중국 등 여타 지역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달러는 절대, 상대 공히 강세 압력이 우위. 원화는 정치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금리인하 기대도 확산, 약세폭이 가팔라. 당국은 RP 매입을 비롯해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규모 확대 및 연장, 선물환포지션 규제 완화 등의 여러 조치를 발표했으나 연말 거래량 부진에 수급이 얇은 만큼 이렇다 할 효과가 미미. 굳직한 힘이 강달러를 지지중인 만큼 의미있는 환율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연초 거래량 회복과 레벨 부담 등을 고려하면 상승 속도 자체는 주춤할 것."

- 예상 거래범위 : 1420-1500원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 @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5.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